"난 나를 믿는다…몸 상태 100% 확신"

KIA 김도영,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1차 캠프 출국

"도루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냐…절대 몸 사리지 않을 것"
"실전 공백 감각 회복 천천히 해결…더 이상 시련은 없다"
"태극마크 책임감…개인보다는 팀, 높은 곳 올라갔으면"

"도루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몸을 사리진 않을 겁니다."

한국 야구 차세대 간판타자 김도영(22·KIA 타이거즈)이 부상 악몽을 털어내고 다시 뛸 준비를 마쳤다.

김도영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1차 캠프가 열리는 사이판으로 떠나기 전 "도루하기 위해 몸을 만들어왔고 재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년 KBO리그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고 그해 11월 프리미어12에서도 맹활약하며 전성기를 열어젖히는 듯했던 김도영에게 작년인 2025년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을 두 번이나 다치면서 정규시즌을 단 30경기만 소화하는 데 그쳤다. 타율 0.309, 7홈런, 27타점으로 짧은 기간 존재감은 보였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재활로 보낸 시간이 훨씬 길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태극마크와 함께 돌아온 김도영은 몸 상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도영은 "우선 몸은 100%라고 생각한다"며 "8월부터 계속 몸을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해온 순서대로 몸을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긴 실전 공백에 대한 감각 회복은 숙제로 남았다.

김도영은 "사실 제 모든 루틴을 까먹었다. 다시 천천히 생각해 나가야 할 거 같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다시 찾아서 야구해볼 생각"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부상 트라우마와 싸우는 과정은 천재 타자에게도 쉽지 않았다.

김도영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놓은 뒤 "못했으면 이제 잘해야 하는 게 야구선수의 숙명이다. 당연히 잘할 생각으로 몸을 만들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팬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뛰는 야구'다.

도루는 김도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허벅지 부상 재발이 우려된다.

한국 야구대표팀 김도영이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차 캠프지인 사이판 출국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도영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그는 "초반에는 조심스러울 것 같고 경기 나가면서 적응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도루를 줄이겠다고 말하기 어렵다. 도루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몸을 사리거나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도영은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 안 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며 "제 몸에 대한 믿음이 남들은 없겠지만, 저는 있다"고 했다.

부상 공백에도 대표팀에 승선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야구선수의 역할로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WBC는 김도영에게도 간절한 무대다.

그는 "WBC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대표팀에는 책임감이 생긴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거라 더욱 책임감이 생기고, 큰 대회라 더 나가고 싶은 욕심이 난다"고 의욕을 보였다.

소속팀 KIA의 이범호 감독과 심재학 단장은 '건강한 복귀'를 신신당부했다.

김도영은 "감독님은 몸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고, 단장님도 무조건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 역시 "선수마다 페이스가 다르니 거기에 맞춰 준비하라"고 주문했고, 김도영은 "다른 선수 보면서 오버 페이스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대회 목표를 묻자 김도영은 개인 성적보다 팀을 앞세웠다.

그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국가대표 야구라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야구가 높은 곳까지 올라갔으면 한다. 팀을 위해 뛰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기획홍보팀 신설…전문·효율성 강화

광주시체육회, '1사무처, 2본부, 4부, 12팀, 1연구원' 직제개편

광주시체육회가 2026년 신년을 맞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성과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 민선 2기 체육회 조직 전반 업무의 전문화·효율화·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사무처 직제를 개편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18면

광주시체육회는 기획경영부 내에 전략기획, 성과관리, 대외홍보, 언론대응 등의 기능을 통합해 조직의 핵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홍보팀을 신설했다. 또 기존의 총무 기능을 인사총무팀으로 재편해 인사, 조직관리, 사무행정 등의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업무를 목적별로 분리해 전문체육부에 대회운영팀과 체육지원팀을, 생활체육부에 생활체육팀과 스포츠마케팅팀을 두고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또 법무감사실과 안전관리팀을 독립 부서로 통합해 감사·법무·인권·안전관리 기능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부여했다. 시설부는 염주시설, 월드컵시설, 무등시설, 진월시설팀으로 부서명칭만 변경해 기존대로 운영한다.

광주시체육회는 1사무처, 2본부, 4부, 12팀, 1연구원으로 직제를 개편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맞춤형 전보를 실시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속도를 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갑수(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은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고 혁신을 도모하고자 직제개편과 전보인사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했다"며 "이번 개편이 오직 시민과 선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바라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KIA, 다문화가족 주말 야구체험캠프 운영

호남지역 다문화가족 중·고생 대상…선착순 25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 야구체험캠프 '2026 KIA 타이거즈 유스 베이스볼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광주·전남·전북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4년 처음 선보인 이후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다.

야구체험캠프는 오는 31일부터 2주에 걸쳐 4회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챔피언스 필드와 챌린저스 필드의 선수단 훈련 시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야구 규칙 설명부터 기초 체력훈련, 기본기 훈련, 미니게임 등으로 구성되며, 캠프 MVP로 선정된 참가자는 홈경기 시구자로 초청된다.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유니폼 세트와 야구용품이 제공되며, 캠프 기간 중 챌린저스 필드의 선수단 식당에서 점심식사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올 시즌 KIA 홈경기에 참가자와 가족을 초청해 단체 관람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다문화가족의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인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무적' 안세영, 새해 첫 대회부터 우승 낭보

'세계랭킹 2위' 왕즈이 맞대결 완승…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새해 첫 대회부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2-0(21-15 24-22)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 대회 3연패 금자탑을 쌓았다.

특히 지난해 8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던 왕즈이를 다시 한번 제압하며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17승 4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경기 초반 안세영은 잠시 흔들렸다. 1게임 초반 5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1-6으로 뒤처졌으나 끈질기게 따라붙어 10-11로 인터벌을 맞았다.

전열을 가다듬은 안세영은 인터벌 이후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7점을 연속으로 몰아치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고, 첫 게임을 따냈다.

2게임에서는 절치부심한 왕즈이가 거세게 반격했다. 안세영은 8-7로 앞서던 상황에서 내리 7점을 실점하며 주도권을 내줬다.

그러나 쉽게 물러설 안세영이 아니었다. 안세영은 13-19로 패색이 짙던 상황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순식간에 6점을 몰아쳐 19-19 동점을 만들었다.

승부는 듀스로 이어졌다. 20-20에서 시작해 세 차례나 동점이 반복되는 혈투 끝에 23-22로 역전에 성공한 안세영은 특유의 날카로운 대각 크로스 샷으로 상대 코트를 찌르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안세영이 11일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를 꺾고 우승을 확정지은 후 포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안세영은 지난해 최대 최다승 타이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3천175달러)을 달성하며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썼다.

2026년 첫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며 기분 좋게 출발한 안세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13일 개막하는 인도 오픈에 출격해 다시 정상을 노린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열린 2026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 한국과 레바논의 경기. 한국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강상윤의 유니폼을 들고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이민성호, 레바논 꺾고 8강行 '청신호'

U-23 아시안컵, 내일 우즈벡戰

6년 만의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왕좌 탈환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제압하고 마수걸이 승리를 따내며 8강 진출에 파란불을 켰다.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U-23 대표팀은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4-2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오는 13일 우즈베키스탄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통해 8강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전반 18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전반 20분 '캡틴' 이현용의 헤더로 골맛을 보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수비진의 아쉬운 클리어링으로 뼈아픈 실점을 했다.

한국은 8분 뒤 다시 동점골을 넣었고, 주인공은 교체 투입된 정재상이었다.

이민성호는 후반 26분 강성진의 왼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뽑아내며 승부를 뒤집었다.

이어 후반 31분 김태원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대역전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었다.

선수들은 이란전에서 무릎 부상으로 하차한 강성진의 유니폼을 들고 '우정의 세리머니'를 펼치며 동료애를 과시했다. /연합뉴스